

지방자치·종합

‘충청권 지원’ 법안에 타 시도 ‘결사항전’

세종시·청주시 교부세 법안 통과땐 전남 495억·전북 349억 감소

정치권이 이번 회기 안에 세종시와 통합 청주시 등 충청권 지방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원방식이 세종시와 통합 청주시에 교부세를 더 주는 형태로 그만한 다른 지자체의 지원분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법안심사소위가, 21일에는 다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며, 민주당 의원 전원재와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155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하는 재정 특례를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25% 5년간 추가 교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 교부하고 2030년까지 총액의 3%까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출범 이후 세종시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0.37%인 1069억원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를 보전해 지원하면 2013~2017년 총 1560억원, 매년 312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면 올해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4378억원으로 3309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도 본청과 산하 시·군·구의 교부세를 합쳤을 때 경북 577억원, 전남 495억원, 강원 371억원, 전북 349억원, 경남 348억원이 각각 각각이 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청주시와 청

원군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의 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할 때 제정됐던 청주시 통합법을 넘어서는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두 법안을 24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 청장협의회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비치면서 연관장을 돌리고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지자체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개정안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살림을 조건 지원하게 되는 꼴”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특표참여 플래시몹

광주시 선관위는 대선을 1개월여 앞둔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광장에서 투표 참여와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탁월한 리더십 발휘 한·중 발전 기대”

박준영지사, 시진핑에 축하 서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신임 총서기에게 축하 편지를 전달했다. 박 전 남지사는 시진핑 총서기에게 “라오 평유(老朋友·오랜 친구)로 부를 정도로 둘 사이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지사는 축하 서한에서 “시 총 서기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중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평화와 번영

을 누리며, 여러 번 만나 확인했듯 이 한중관계 또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국제적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는 지난 2005년 7월 시 총서기로 저장성



(浙江省) 당시 기 자격으로 자매 결연 한 전남도를 방문할 때 처음 만난 뒤 그동안 4차례 개별 만남을 가졌다.

2007년 7월 3번째 만남에서는 박 지사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헐리게 될 위기에 놓인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보존을 요청하자 당시 상하이 당시기이던 시총서기가 담당국장에서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 후 보존토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희호 여사 넘어져 머리 봉합수술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0) 여사가 17일 연 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머리 봉합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이 여사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자택 화장실에서 세수하다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으며, 같은 날 밤 10시30분께 병원을 찾아 상처 부위를 세 바늘 정도 훠내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유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동구 소태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561㎡ 건물1440㎡ 김정기12억4천 최저기8억7천

▷ 서구 치평동 역세권 5층상가주택 대지230㎡ 건물 716㎡ 김정기1억5천 최저기6억2천

단독주택

▷ 북구 용봉동 용봉IC 인근 2층단독주택 대지 160㎡ 건물193㎡ 김정기1억1천3천3백 최저기7천9백

▷ 남구 복립동 2층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251㎡ 건물152㎡ 김정기1억9백 최저기7천6백

▷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 합) 대지505㎡ 건물140㎡ 김정기1억3백 최저기8천3백

▷ 장성 활동면 권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김정기1억1천 최저기7천8백

공장

▷ 북구 용진동 대지2315㎡ 건물1543㎡ 김정기 22억7천4백 최저기8억2천

▷ 장성 동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김정기 14억2천 최저기6억3천5백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 무인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음 전3643㎡ 전3643㎡ 전3643㎡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미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곡동 수도원 정도 대형차량인입지농지면역 광주서구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92천 매도가 8억5천 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일내로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종상임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집, 농지전용 원로.

■ 매매기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청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활동면 장성면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949.co.kr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7140평 공사가 4억 9천 매도3억4천 • 금남로 대지900평 건평 300 감정 17억이상 10억4천 • 종상동 대지277평 건평 30 평가 1억9천 매도900㎡ • 유흥별관점적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으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 총서기에게 “앞